

# 당신의 죄에 대해 기도하는 방법

시편 51편 - 제1부

2023년 5월 21일 설교

크리스 식스 목사

우리는 "시편이 우리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설교 시리즈를 진행해 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51편 상반절을 봅니다.

원본 히브리어 사본에는 다음과 같은 소개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음악 감동을 위해.

다윗의 시.

다윗이 밋세바와 간음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 서문은 사무엘하 11장에 기록된 다윗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를 가리킨다.

시편 51편을 보기 전에 이 내용을 읽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1:2-4은 이렇게 말합니다.

2 어느 늦은 오후 다윗이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그는 지붕에서 목욕하는 여자를 보았다. 그 여자는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3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 여자에 대하여 물으니

"이 사람은 헷 사람 우리아의 아내 엘리암의 딸 밋세바가 아니요?"

4 다윗이 사자들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니 그가 그에게로 오매 그가 동침하니라

(이제 그녀는 자신의 더러움에서 자신을 정결케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녀는 집으로 돌아갔다."

방금 들으신 대로 다윗 왕은 아름다운 시집간 여인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원했고 그녀를 데려갔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지위를 이용하여 밋세바와 간음했습니다.

곧 그녀는 임신을 했고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우리아를 전쟁에서 데려와 그의 아내와 동침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숨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계획은 먹히지 않아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였습니다.

다윗은 우리아를 죽임으로써 자신의 죄가 은폐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며 모든 죄는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어 다윗을 대적하고 회개하도록 권유하셨습니다.

모든 죄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의 관계, 내적으로는 영혼과의 관계, 수평적으로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손상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회개하라고 하셔서 모든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나단이 그를 대면한 후 회개의 기도로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이제 시편 51:1-9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 1 하나님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 2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내 죄에서 나를 깨끗케 하소서.
- 3 나는 내 죄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 4 당신께만 제가 죄를 지었나이다  
당신이 보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평결이 옳습니다  
판단하실 때에 의로우시니이다
- 5 실로 나는 죄 가운데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 6 그러나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신실함을 원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 7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깨끗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그러면 내가 눈보다 희게 되리이다
- 8 내가 기쁨과 즐거움을 듣게 하소서.  
주께서 짓밟으신 뼈들이 기뻐하게 하소서.
- 9 내 죄에서 주의 얼굴을 가리우소서  
나의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우리는 함께 이사야 40:8을 읽었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 저와 함께 기도해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우리의 죄는 당신과의 교제를 깨뜨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의 도덕적 실패를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패했을 때 기도하는 방법을 이해하여 용서받고 치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구절들을 순서대로 함께 살펴봅시다.

1절과 2절에서 다윗은 용서를 구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1 "하나님이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당신의 변함없는 사랑을 따라

주의 크신 긍휼하심을 따라

내 죄를 지워 주소서.

2 나의 모든 죄악을 씻어 주소서

내 죄에서 나를 깨끗케 하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할 이유로 자신의 선행을 호소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가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편에서 다윗의 놀라운 정직성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큰 긍휼"에서 동기가 부여됩니다.

미국 역사상 최악의 범죄자 중 한 명인 알 카포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고향인 시카고에서 Capone은 매춘, 마약, 도박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었습니다.

그는 약 200건의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카포네는 11년만 복역했다.

그것이 그의 모든 죄를 지拂하기에 충분한 시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18

이것은 알 카포네가 48세에 매장되었을 때 그의 묘비에 쓰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나의 예수, 자비."

나는 알 카포네가 죽기 전에 실제로 구원을 위해 예수를 믿었는지 전혀 모릅니다.

Capone이 David 왕처럼 자신의 죄를 겸손하게 회개했다는 서면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카포네의 묘비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말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자신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이해했습니다.

Capone은 지상의 어떤 것도 그의 모든 죄악을 씻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11년, 22년 또는 99년을 보낼 수 있었지만 죄에서 깨끗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왜?

죄는 우리 정부의 법을 어기는 것 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죄는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왕이신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한 반역입니다.

용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정직할 때까지 가능하지 않습니다.

3절을 다시 들어보세요.

3 "내가 내 죄과를 알고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자신을 속이거나 자신의 악행을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특정한 죄를 구체적으로 명명합니다.

자신의 죄에 대해 완전히 정직하면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더 많이 고백하면 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온전한 높이와 넓이를 알고 싶다면 자신의 죄의 온전한 깊이와 넓이에 대해 정직해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기만에 매우 능숙합니다.

우리는 악하다고 인정하는 일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는 우리가 좋은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저임금으로 일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상사에게 급여 인상을 세 번 요청했지만 그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당신은 집세를 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당신의 상사는 멋진 큰 집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당신은 금전 등록기에서 100달러를 꺼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도둑질을 합리화합니다.

"내 상사는 돈을 많이 벌고 이기적이다.

추가 \$100는 그에게 해가 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나는 매우 열심히 일하고 이번 달에 여분의 돈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은 100달러가 공정하고 좋은 것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기 때문에 100달러를 받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런 일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은 항상 군대와 함께 갔기 때문에 그녀는 혼자입니다.

그녀는 외롭고 나는 외롭다.

서로가 우리의 외로움을 치료하도록 돕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의견이나 감정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기 때문  
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4절에서 말하는 한 가지 이유입니다.

4”내가 당신에게만 죄를 지었습니까?

당신이 보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당신의 평결이 옳습니다

심판하실 때에 의롭다 하심을 얻으셨습니다.”

다윗은 누구에게 죄를 지었습니까?

그는 밧세바를 다윗의 침상으로 데려오라고 종들을 보냈을 때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다윗은 아내와 간음을 범하여 우리아에게 죄를 지어 그를 죽였습니다.

그러나 모든 죄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범죄입니다.

다윗이 결혼 서약을 어겼을 때 그는 하나님의 결혼 서약도 어겼습니다.

다윗이 우리아를 죽였을 때 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사람을 죽였습니다.

다윗은 자신과 남에게 거짓말을 하여 거짓의 왕인 사탄의 편이 되었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의 사람들은 죄라는 개념에 불편해합니다.

그들은 나쁜 행동이 무지나 질병의 결과라고 믿는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왜 아파르트헤이트가 남아공에 그렇게 오랫동안 존재했을까요?

소수 백인 인구가 흑인 원주민 인구를 억압하고 예측시킨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백인들이 이웃 흑인들의 인간성을 볼 수 있는 교육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요.

아파르트헤이트의 근본 원인은 죄 많은 인간의 마음에 있는 탐욕과 교만이었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는 말한다.

“교수들과 의사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분명히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그 무언가는 죄입니다.”

우리는 교육, 의학 또는 법률로 죄를 지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탐욕과 성적인 죄와 억압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 없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움 없이 영혼의 병을 치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뿌리 깊은 죄 문제를 해결하려면 우리 자신과 서로에게 그리고 하나님께 완전히 정직해야 합니다.

이것이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 것입니다.

이제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5”나는 실로 죄 중에 태어났으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인입니다.

6 그러나 당신은 모태에서부터 신실함을 원하셨습니다.

그 은밀한 곳에서 내게 지혜를 가르쳐 주셨나이다.”

나는 아기가 사랑스럽고 소중하다는 것을 압니다.

또한 권위에 원망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

신학자들은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자녀가 죄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사실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2세, 4세 자녀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자기중심적이 되었는지 설명해주세요!

누군가 2살짜리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아니오!"라고 말하도록 가르쳤습니까? 그들의 부모에게?

그 반항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 자신의 마음.

누군가 4살짜리 아이들에게 "내꺼야!"라고 외치라고 가르쳤나요? 다른 아이들이 장난감을 만질 때?

그 이기심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그들 자신의 마음.

원죄 교리는 우리의 죄를 변명하지 않습니다.

요점은 우리의 문제가 우리 내면 깊숙이 심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자신에게만 몰두해 온 심장에는 빠르고 쉬운 해결책이 없습니다.

이제 시편 51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인 7절을 살펴봅시다.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다윗은 "내가 당신에게 빚을 갚겠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나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우슬초 가지의 사진입니다.

오래 전에 이 식물은 때때로 빗자루나 붓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그의 백성을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셨을 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파라오는 히브리 노예 노동자들을 석방하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음의 천사를 보내 모든 집의 장자를 죽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집에서 표적을 찾으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12:21-23을 들어보십시오.

21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속히 가서 너희 가족을 위하여 가축을 택하고 유월절 양을 잡으라.

22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대야의 피에 적시고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너희는 아무도 아침까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23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치려고 두루 다니실 때에

그는 문설주와 좌우 문설주에 있는 피를 보고 그 문을 넘어가리라.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은 왜 피를 표적으로 선택하셨습니까?

피는 동물의 생명을 상징했습니다.

양의 목이 잘리자 피가 쏟아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생명을 대신하여 죄 없는 동물의 생명을 받으셨습니다.

피의 제사는 죄를 씻기 위한 속죄의 행위였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11 "몸의 생명이 그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하여 여호와와 의롭게 하기 위하여 제단 위의 피를 너희에게 주었노니  
정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생명과 교환하여 주어진 피입니다."

애굽에서 그 죽음의 밤에 양의 피가 히브리인의 생명과 교환되었습니다.

그 후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동물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우슬초로 자신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간구했을 때 그는 대체 제물을 구했습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피를 통해 자신의 끔찍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친구들이여, 오늘날 우리는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당신이나 예수님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홀로 하나님의 심판 보좌 앞에 설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많은 죄를 설명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하나님께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용서받고 싶다면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7절을 기도하고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 7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를 씻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하나님께서서는 동물 희생의 피로 결코 죄의 오점을 완전히 또는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영혼은 죄로 더럽혀졌기 때문에 그 오점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피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희생적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몇 분 안에 우리는 생명의 떡을 먹고 용서의 잔을 마시기 위해 이 식탁에 올 것입니다.

이 친교의 성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라는 사실을 상기시켜 줍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피를 바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6:26-28에서 친교의 성례전을 시작하실 때 이것을 설명하셨습니다.

26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27 또 잔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다 마셔.

28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여호와와의 만찬은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면서 단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죄 없는 한 사람의 오염되지 않은 피만이 수백만의 죄를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유목민들이 늑대에게 많은 양을 잃습니다.

늑대는 하룻밤에 수십 마리의 양을 죽일 수 있습니다.  
영리한 티베트 양치기들은 늑대를 잡기 위해 구덩이를 파고 있습니다.  
구덩이에 목자들은 늑대를 유인하기 위해 어린 양 한 마리를 제물로 바쳤습니다.  
늑대는 어린 양을 죽이고 목자들은 늑대를 죽입니다.  
어린양 한 마리의 피가 나머지 양들을 구원하기 위한 대속물과 제물로 드러집니다.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은 기꺼이 흑암과 사망의 구덩이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는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의 대신으로 자신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당신은 그것을 믿습니까?

당신의 죄된 마음에 대해 당신 자신과 하나님께 정직할 수 있다면 기쁨과 영생이 당신의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사랑의 하나님께 자비를 구할 때 평안과 치유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경배와 순종과 헌신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일은 함께 서서 죄를 고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송영을 부른 후에 우리가 받은 용서를 축하하기 위해 주님의 만찬에 나아갑니다.

지극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의 죄를 당신과 서로에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다함께: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온 마음과 생각과 힘을 다해 당신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다함께: 주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는 용서받은 것처럼 남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다함께: 주님, 당신께 고백합니다.*

우리의 분노와 교만과 시기과 위선을 당신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잘못을 저질렀고 옳은 일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함께: 사랑하는 주님,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죄에 대한 형벌을 지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체 희생이 필요합니다.

*다함께: 하나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범사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소서.

*다함께: 우리를 보내어 온 세상에 당신의 크신 자비와 연민을 전하게 하소서.*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아멘.